

# 미국이민 한국인 1세대의 생존 태도 유형 - Q 방법론적 접근 -

조계화<sup>1</sup> · Doorenbos, Ardith Z.<sup>2</sup>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sup>1</sup>, 워싱턴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sup>2</sup>

## Types of Survival Attitudes among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Q-Methodological Approach

Jo, Kae Hwa<sup>1</sup> · Doorenbos, Ardith Z.<sup>2</sup>

<sup>1</sup>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sup>2</sup>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Nursing, University of Washington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ubjective opinions of first-generation Korean-Americans about survival. **Methods:** The Q-methodology which provides a method of analyzing the subjectivity of each item was used. The 34 selected Q-statements from each of 38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a shape of normal distribution using a 9 point scal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a QUANL/WIN program. **Results:** Four types of survival attitudes from 38 first-generation Korean-Americans were identified. Type I was a satisfaction type based on belief, Type II was an effort type based on purpose, Type III was an isolation type based on ethnicity, and Type IV was a compromise type based on adaptation.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pproaches to a minority's survival strategies need to be differentiated taking this typology and various subject characteristics into account. **Conclusion:** This information may provide a basic understanding for healthcare providers who work with first-generation Korean-Americans.

**Key Words :** Immigrant, Survival, Attitude, Methodology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미국 이민 사회의 소수민족 가운데 한국인의 이민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백만 명을 훨씬 넘고 있으며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중국, 필리핀, 일본에 이어 한국인이 네 번째이다 (Kim & Wolpin, 2008). 이들은 생존을 위한 사회, 문화적 적응 과정을 경험하면서 정체성의 변화, 가

치, 행동,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Shin, Han, & Kim, 2007). 더구나 새롭게 형성된 사회 일원으로서 정서적, 문화적 마찰로 인해 우울 증상과 자살률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Park & Bernstein, 2008), 생존을 위한 정신적 고통의 증가와 심각한 사회적 적응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Kim & Wolpin, 2008). 그러나 현재까지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 분위기는 저조한 실정이다.

국어사전 검색 (Nate, 2009-a)에서 생존은 명사로서는 ‘살아있음’, 또는 ‘살아남음’의 의미를 지니며 동사

**Corresponding address:** Jo, Kae-Hwa,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056-6 Daemyung 4-dong, Nam-gu, Daegu 705-718, Korea. Tel: 82-53-650-4825, Fax: 82-53-650-4392, E-mail: joke@cu.ac.kr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013-E00062).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KRF-2008-013-E00062)

투고일 2009년 9월 23일 수정일 2009년 10월 28일 게재확정일 2009년 11월 12일

로는 ‘여럿 가운데 일부가 죽음을 모면하여 살아서 남아 있게 되다’, ‘어떤 분야에서 밀려나지 않고 존속하다’, ‘생존경쟁에서 살아남다’로 표기되어있다. 영영사전 검색(Nate, 2009-b)에서는 ‘실존’, ‘현존’, ‘생명유지’로 표기되며, ‘생명이 존재함’, ‘다양한 민족, 문화, 종교적 사회 안에서 존재 하는 상태’로 설명된다. 이와 같이 생존의 사전적 의미는 다차원적인 환경에서의 개인 적응을 내포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의 생존 개념은 다문화사회 안에서 지속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한인 1세대의 적응과 생존 방식, 그리고 자아 유지를 위한 노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재미 한인 1세대는 한국에서 성인기를 거친 이민자들로서 이들은 대부분 차별대우, 의사소통 장애, 사회적, 경제적 지지 자원의 부족과 저소득으로 인한 좌절, 미국 사회에 소속되지 못하는 고독감, 낯선 환경으로 인한 불안감과 방향감각의 상실을 경험하면서(Shin et al., 2007), 우울과 자살생각 등 노년기의 발달과업에서 중요한 생의 통합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노년기의 이민 생활은 언어적, 문화적 부적응으로 인해 어른으로서의 자존심과 힘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세대차이, 가족 구조와 도덕적 가치의 변화, 역할갈등 등으로 인해 노인의 삶의 질이나 이와 관련되는 건강문제 측면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Oh, Koeske, & Sales, 2002).

기존연구들은 이민자의 우울과 관련된 심리적으로인 사회적 시사점을 밝힌 정도이며 이민 1세대의 문화적응과 극복과정에서 형성된 생존태도를 밝힌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Smedley, Stith와 Nelson (2003)은 미국정부의 보고서에서 미국 내 소수민족은 백인에 비해 높은 이환율과 치사율을 가지고 있으나 소수민족의 건강관리 수행 및 건강신념에 관한 자료는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의 확대 및 다문화 2세대 형성이라는 서구화 경향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이민 1세대의 생존태도를 연구할 필요성과 함께, 다문화사회를 향한 총체적 건강 문제의 해결 방안을 위해 필수적이다.

타문화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하는 경우, 문화

적 상황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적응과정은 높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며, 적응과제가 개인의 대처능력을 초과할 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Berry, 2003). 이러한 관점은 문화적응과 관련한 연구에서 스트레스-대처접근(Folkman, Lazarus, Gruen, & DeLongis, 1986)에 기반한 것으로, 이 접근은 문화적 이동을 스트레스 생활사건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응 자원과 대처반응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이민 전 신념과 이민 후의 스트레스 생활사건 및 대처반응에 따라 이민자들의 생존 태도가 달라 질 것으로 예측하고 이들의 태도 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태도는 타인과의 관계의 본질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미국 내 이민 1세대의 생존태도를 연구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의 삶과 문화적응을 통한 소수민족의 건강상태를 예측해 준다는 기대 때문이다. 미국 내의 한국이민 1세대가 한국에서 유년기와 청 장년기를 보내고 미국에 이주하여 가치관이 다른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에 반하는 마찰과 도전의 변화 과정과 생존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들 미국 이민 1세대들은 앞으로 한국사회의 소수민족들이 겪게 될 변화를 부분적으로 그리고 훨씬 강화된 강도로 미리 겪고 있는 셈이며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서 이들이 겪는 생존경험과 적응과정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은 향후 한국 사회가 겪게 될 소수집단의 건강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는 국제화, 다문화사회로 건강관리 대상자의 건강요구나 문제해결에서 폭넓은 인간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돌봄 과학에서 인간을 인식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는 사회적 존재, 번민하는 존재, 개방체계로서의 인간, 그리고 적응하는 존재 등으로 조명된다. 인간의 행위란 사회적인 구조와 움직임 속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각각의 행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상이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을 광범위한 면과 집중적인 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민 1세대의 생존에 관한 태도 연구는 인간의 행위나 생각을 독립적

으로 떼어내어 분석하는 것을 거부하는 Q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 더구나 인간의 사회적 본성은 다른 인격성과의 관계에서 충족되므로 (Lee, 2008), 미국이민 1세대의 생존에 관한 태도 연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변화 뿐 아니라 이후에 발생할 보다 광범위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진단하는 표적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미국이민 1세대의 생존에 관한 태도유형을 파악하여 이들의 적응과 대처양상을 이(異) 문화적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다문화, 글로벌사회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소수민족의 건강문제 해결의 방향 모색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미국이민 1세대의 생존에 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Q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 2. 표집방법

#### 1) Q모집단 및 Q표본의 구성

Q모집단(Q-Population)은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미국이민 1세대의 생존에 관한 태도 구성에 대한 진술문을 추출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고찰과 개방형 질문지 그리고 개별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수행하였다.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한 자료 수집은 미국 워싱턴 주 일 지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성인 40명을 임의 추출하여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2월 1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미국에서 지내시기가 어떠세요? 생활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이민생활에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이민생활에서 가장 고통스런 일은 어떤 것이었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셨나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방해요인은 어떤 것인가요? 등의 6문항이 포함되었다.

수집된 개방형 질문지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개방형 질문지에 덧붙여 좀 더 심도 있는 자료를 수

집하고자 개별면담을 수행하였다. 개별면담은 워싱턴 주 시애틀 지역의 30세 이상 성인 10명을 임의 추출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7명에 한해 수행되었다. 면담 내용은 위에 언급된 질문을 포함하여 생존과 관련된 요인들을 인간학적 관점에서 신체, 심리, 사회, 경제, 종교적 측면의 의견 등을 포함하였다. 이 외에도 이민자의 생활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전문서적, 국내외 전문잡지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합하여 총 138개의 Q모집단을 추출하였다. Q표본의 선정을 위하여 준비된 Q모집단을 놓고 이민자의 생존에 관한 태도가 범주화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분류하였으며 이를 다시 간호학과 교수 2인과 Q방법론 전문가 1인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34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 2) P표본(P-Sample)의 표집방법

Q방법론은 양적 연구와는 달리 사람이 변인이 되므로 P표본이 커지면 한 인자에 여러 사람이 편중되어 그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소 표본이론에 근거하여(Kim, 1992) 임의추출한 표본의 수를 30세 이상 성인 총 38명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Q표본의 진술문이 34개이므로 이와 비슷한 표본의 경우에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Stephenson, 1982; Kim, 1992).

#### 3) Q표본 분류(Q-sorting) 및 자료분석방법

Q표본의 분포도는 연구대상자들이 Q표본으로 선정된 34개의 진술문들을 자신의 의견의 중요도에 따라 9점 척도 상에 분류하여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강제 분포시키는 Q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준비하였다. Q표본 분류는 Q표본을 먼저 읽은 후 긍정(+), 중립(0), 부정(-)의 세 부분으로 나눈 다음 긍정(부정)진술문 중에서 가장 긍정(부정)하는 것을 차례로 골라 바깥에서부터(+4, -4) 안쪽으로 분류를 진행케 하여 중립부분(0)에서 마무리하게 하였다. 이때 양끝에 놓인 2개씩의 진술문 4개에 대한 선택 이유를 면담을 통해 받아두었다(Table 1).

Q분류과정 전에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 기록하게 하

였고 한사람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는 30~40분이 소요되었다.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연구보조원이 진술문을 읽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다. 코딩은 가장 반대하는 경우를 1점으로 시작하여 중립인 경우 5점, 가장 찬성하는 경우에 9점을 부여하여 점수화 하였다.

자료분석은 PC-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34개의 항목별 평균, 표준편차, 표준점수를 구하였다. 그 후 다시 34개의 항목을 P-표본을 축으로 하는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방법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하였다. 유형은 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 수를 다양하게 입력하여 산출된 결과 중 최선이라고 판단된 것을 선택하였다.

**4) 윤리적 고려**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에 들어가기 전, 일 대학교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쳐 수행하였다. 참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면담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면담 내용의 녹음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구두동의를 얻고 이에 대한 내용을 녹음하였다. 악행금지의 원칙에 따라 참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면담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개인의 사적인 상황은 비밀로 유지하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과 연구결과가 출판된다는 점, 참여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

음을 알렸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정체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컴퓨터 파일에는 연구자 고유의 비밀 번호를 부여하고 참여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삭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Q유형의 형성**

QUANL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생존태도에 대한 주관성을 Q요인 분석한 결과 4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요인은 전체변량의 49.3%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전체 변량이 작은 것은 대상자 의견의 다양성 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Q연구에서는 주요인 견해만을 다루는 것을 연구자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변량의 크기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각 유형별 변량은 제1유형이 23.4%, 2유형이 11.3%, 3유형이 10.1%, 4유형이 4.5%였다. 제1유형이 23.4%의 설명력을 가지므로 생존태도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Table 2, Table 3).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각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아 각 유형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었으며 진술문 표본 및 유형별 표준점수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1.** Distribution of Q-sample card

	(Disagree) (Neutral) (Agree)								
Score	-4	-3	-2	-1	0	+1	+2	+3	+4
No. of card	2	3	4	5	6	5	4	3	2

**Table 2.** Eigen values, variance, and cumulative percentage

	Type 1	Type 2	Type 3	Type 4
Eigenvalues	8.8996	4.3089	3.8382	1.6898
Variance (%)	0.2342	0.1134	0.1010	0.0445
Cumulative	0.2342	0.3476	0.4486	0.4931

Table 3. Types, weigh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p-samples

(N = 38)

Type	Subject's number	Factor weight score	Sex	Age	Occupation	Years of immigration	Religion	Level of education	Subjective economic state
Type 1 (n = 17)	VAR36	3.2900	F	68	None	30	Catholic	University	High
	VAR21	2.3813	F	57	Clerk	16	Protestant	College	Low
	VAR37	2.0202	M	44	Researcher	12	Catholic	University	High
	VAR23	1.7316	F	48	Housewife	26	Catholic	College	Middle
	VAR16	1.7021	M	71	None	40	Protestant	University	Low
	VAR30	1.3131	M	70	Volunteer	15	Catholic	College	High
	VAR38	1.2954	F	40	Housewife	12	Buddhism	College	High
	VAR35	1.2026	M	55	Mechanic	11	Buddhism	College	Middle
	VAR05	1.1960	F	68	None	40	Catholic	Middle school	Middle
	VAR34	1.0605	F	49	Care aide	11	Buddhism	College	Low
	VAR14	1.0274	F	65	Housewife	17	Catholic	Middle school	Middle
	VAR06	0.9200	M	70	Volunteer	37	Catholic	University	Middle
	VAR12	0.8756	M	58	Business	15	Protestant	University	Middle
	VAR10	1.4368	M	56	Consultant	12	Catholic	University	Middle
	VAR02	0.6566	F	67	None	14	Catholic	High school	Middle
VAR17	0.5993	F	52	Volunteer	22	Catholic	College	High	
VAR15	0.1224	F	58	Volunteer	28	Buddhism	College	Middle	
Type 2 (n = 9)	VAR26	1.9442	M	60	Business	14	Catholic	University	High
	VAR32	1.6392	M	52	Business	23	Catholic	University	High
	VAR27	1.5118	F	50	Clerk	13	Catholic	University	Middle
	VAR33	1.2621	F	48	Clerk	23	Protestant	High school	Middle
	VAR25	1.2598	M	53	Business	11	Catholic	University	High
	VAR11	0.9723	M	67	Volunteer	14	Protestant	University	High
	VAR07	0.7721	F	48	Clerk	11	Catholic	High school	Low
	VAR13	0.4971	M	63	Business	36	Buddhism	University	High
	VAR01	0.3768	M	36	Mechanic	12	Catholic	College	Middle
Type 3 (n = 6)	VAR18	2.8999	M	49	Carpenter	7	Catholic	University	Low
	VAR22	1.7827	F	55	Clerk	15	Protestant	University	Low
	VAR24	1.7077	F	56	Housewife	15	Buddhism	High school	Middle
	VAR20	1.0751	M	59	Business	16	Buddhism	University	Middle
	VAR19	0.7741	M	54	Mechanic	26	Catholic	College	Low
	VAR08	0.7464	M	49	Business	13	Catholic	University	Middle
Type 4 (n = 4)	VAR04	1.1534	M	60	Consultant	35	Catholic	University	Middle
	VAR31	0.8517	F	66	Business	16	Catholic	University	High
	VAR29	0.7583	M	64	Business	16	Protestant	College	Middle
	VAR28	0.6168	F	67	Volunteer	20	Protestant	University	Low
	VAR03	0.5610	M	39	Manager	8	Protestant	College	Middle
	VAR09	0.2601	M	50	Business	14	Catholic	University	High

\* VAR = variable; F = female; M = male.

## 2. 유형별 특성과 해석

연구대상자의 구성은 제1유형이 17명, 2유형 9명, 3유형 6명, 그리고 4유형 6명의 총 3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유형 내에서 인자가중치 (factor weight)가 가장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의 전형적 (prototype) 혹은 이상적 (ideal)인 사람으로 그 유형을 대표함을 의미한다 (Table 3).

생존의 인식에 관한 주관성을 유형별로 분석, 기술하기 위해 우선 각 대상자들이 긍정적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고, 또한 개별 진술항목에 대한 특정 유형의 표준점수와 나머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와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 설명하였다. 또한 각 유형의 특성을 해석할 때 Q 분류과정 당시 관찰 및 면담한 내용인 양극단의 의견과 인구사회학적 배경 등을 참조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분석방법에 의해 산출된 대상자의 생존태도의 인식에 관한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제1유형: 신념기반-만족형

제1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유형 1에 속한 대상자는 총 38명 중 17명이며 평균 나이는 58.6세로 연령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한다. 대부분이 가정주부와 봉사자이며, 평균 이민횟수는 21.5년으로 그룹 중 가장 높았다.

유형 1이 생존 태도에 관해 강하게 동의를 보인 진술 항목은 ‘종교생활에 심취 한다’,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 쓴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산다’, ‘원만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 한다’였다. 반면 제1유형이 가장 비 동의를 보인 항목은 ‘그럭저럭 목숨이 있는 한 살아 간다’, ‘살기 위해 자존감을 포기 한다’, ‘자기 고집으로 산다’ 등으로 나타났다 (Table 5).

제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종교생활에 심취 한다 (Z값 = 2.09)’,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 쓴다 (Z값 = 1.43)’,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산다 (Z값 = 1.36)’, ‘원만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Z값 = 1.13)’이었고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비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자기 고집으로 산다 (Z값 차이 = -2.05)’, ‘그럭저럭 목숨이 있는 한 살아간다 (Z값 차이 = -1.82)’, ‘살기 위해 자존감을 포기한다 (Z값 차이 = -1.52)’, ‘물질이나 돈에 적당한 가치를 둔다 (Z값 차이 = -1.49)’,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Z값 차이 = -1.30)’ 순이었다.

유형 1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연구대상자 36번이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을 보면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 쓴다’, ‘흥미를 느끼는 활동적인 취미를 갖는다’ 는 항목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비 동의한 항목은 ‘살기 위해 자존감을 포기 한다’, ‘그럭저럭 목숨이 있는 한 살아 간다’였다. 연구대상자 36번은 이민 온지 30년이 된 은퇴 노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삶으로서 행복하게 생을 마무리 하고 싶다고 밝혔다. 열심히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민생활이든 본국생활이든 필수적이며 그럭저럭 살기에는, 자신을 포기하기에는 삶이 너무 나 소중하다는 걸 신앙을 통해 깨달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민이라는 복합 문화 속에서 자기 고집만 주장한다면 이민사회에 융합할 수 없을뿐더러 삶이 힘들어진다고 강하게 피력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1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20년 이상의 오랜 이민 생활을 경험한 자들로서 종교적 신념과 건강, 원만한 가족관계형성을 통한 행복한 삶과 현실만족에 이민생활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여 ‘신념기반-만족형’으로 명명하였다.

### 2) 제2유형: 목표기반-노력형

제2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38명 중 9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나이는 53세로 가장 젊은 그룹에 속한다. 대부분이 개인사업과, 기계공, 점원 등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 이민횟수는 17.4년으로 나타났다.

유형 2가 생존 이유에 관해 강하게 동의를 보인 진술 항목은 ‘이민 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물질이나 돈에 적당한 가치를 둔다’, ‘폭넓은 예측과 포괄적인 지식을 갖는다’, ‘이민국의 장점을 찾는다’, ‘개성과 소질을 발전시킨다’ 등이었다. 반면 제2유형이 가장 비

**Table 4.** Q-samples and Z-scores according to types

Q-statement	Z-score			
	Type 1 (n = 17)	Type 2 (n = 9)	Type 3 (n = 6)	Type 4 (n = 6)
1. I have good memories of my past.	0.2	-0.3	1.9	-0.9
2. I try to forget my life in Korea.	-1.1	-0.7	-2.0	-1.5
3. I develop my personality and character.	0.4	1.2	-0.3	-0.1
4. I try to understand the purpose of immigration.	-0.1	2.2	-0.5	-0.1
5. I try to be ready and knowledgeable for the future.	-0.4	1.3	-1.1	-1.2
6. I am devoted religious life.	1.6	-0.7	0.3	-1.1
7. I have an interesting and dynamic hobby.	0.7	0.3	-0.0	-0.5
8. I try to maintain health.	1.5	-0.0	1.0	-0.8
9. I try to possess a sense of humor.	0.3	-0.5	-0.3	-0.3
10. I maintain a connection with the Korean community.	-0.3	-0.6	1.8	-0.8
11. I try to maintain my self-esteem and identity in all circumstances.	0.4	-0.7	0.8	-1.4
12. I give up self respect for survival.	-2.1	-0.5	0.4	-1.6
13. I try to find a good quality of America.	0.5	1.2	-1.2	1.3
14. I try to bear difficulties.	1.0	0.4	1.1	1.8
15. I easily adjust to changes in situation.	-0.4	0.9	-1.0	2.2
16. I put a fitting values on materials or money.	-0.3	1.6	1.0	1.0
17. I use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America like a dutiful child.	-0.3	-2.0	-1.2	0.3
18. I hang my hopes and reliance on my children.	0.2	-1.4	-0.0	0.4
19. I try to have harmonious family relation.	1.4	-.5	0.1	1.1
20. I live as long as my life lasts.	-2.2	-1.9	0.8	-0.2
21. I live in a satisfactory way.	1.0	-0.9	0.1	1.4
22. I live stately with courage.	1.1	0.7	0.0	0.3
23. I improve my relationship with the main society.	-1.1	0.4	-2.1	0.2
24. I change my lifestyle and values into those of Americans.	-0.5	0.8	-1.4	-0.4
25. I do not reveal too much about myself.	-1.0	0.1	1.1	-0.3
26. I live my own way.	-1.4	0.7	1.3	0.0
27. I feel relief compared to the life before in Korea.	-1.3	-1.7	-1.6	0.2
28. I live with a sense of wellbeing.	1.4	-0.6	-0.6	1.2
29. I live freely and conscientiously.	1.3	-0.3	0.8	0.9
30. I live eagerly so that I am not left behind.	-0.6	1.0	-0.3	-0.0
31. I have some close friends.	0.9	-0.1	0.4	-0.0
32. I never break a rule or a law.	0.4	1.0	0.2	0.6
33. I feel no envy at other's success.	-0.2	-0.7	0.2	0.5
34. I value my appearance.	-1.0	0.3	0.2	-2.1

동의를 보인 항목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효자로 생각한다’, ‘그럭저럭 목숨이 있는 한 살아간다’, ‘한국생활과 비교하며 안도감을 갖는다’, ‘자식에게 희망을 걸고 기대한다’ 등으로 나타났다 (Table 5).

제 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이민 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Z값 = 2.46)’, ‘폭넓은 예측과 포괄적인 지식을 갖는다 (Z값 차이 = 2.23)’, ‘자신의 생활태도와 가치관을 미국식으로 바꾼다 (Z값 차이 = 1.58)’,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증진시킨다 (Z값 차이 = 1.39)’,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산다 (Z값 차이 = 1.31)’ 등이었고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비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스스로 만족하며 산다 (Z값 차이 = -1.73)’, ‘자식에게 희망을 걸고 기대한다 (Z값 차이 = -1.59)’,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효자로 생각한다 (Z값 차이 = -1.54)’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 2에서 인자가중치가 제일 높은 연구대상자 26번이 가장 동의한 항목을 보면 ‘이민 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개성과 소질을 발전시킨다’의 항목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비 동의한 항목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효자로 생각한다’, ‘한국생활과 비교하며 안도감을 갖는다’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26번은 이민 온지 14년 된 60세의 남성으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으며 주관적 경제상태를 높게 평가하였다. 이민 온 이상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민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수용하기까지 피나는 노력이 수반됨을 피력하였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개척자 정신으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려 노력했다고 진술하였다. 삶은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성장과정에 있으며 무엇에 안도하고 멈추어 서는 것은 목표 달성에 방해요인일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2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이민생활에서의 생존 이유를 목표 달성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 이민국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개방적 자세와 수용적 태도를 소지하는 것으로 보여 ‘목표기반-노력형’으로 명명하였다.

### 3) 제3유형: 민족기반-고립형

유형 3에 속한 대상자는 총 38명 중 6명이며 여성보다 남성이 두 배로 많고, 평균 나이는 53.7세이다. 가정주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평균 이민횟수는 15.3년으로 그룹 중 가장 낮았다.

유형 3이 생존 이유에 관해 강하게 동의를 보인 진술 항목은 ‘과거의 좋은 추억을 회상한다’, ‘한국민족 공동체에 대한 일치감을 가지고 산다’, ‘자기 고집으로 산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어려움은 인내하고 참는다’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제3유형이 가장 비 동의를 보인 항목은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증진시킨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잊으려고 한다’, ‘한국생활과 비교하며 안도감을 갖는다’, ‘자신의 생활태도와 가치관을 미국식으로 바꾼다’ 등으로 나타났다 (Table 5).

제3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한국민족 공동체에 대한 일치감을 가지고 산다 (Z값 차이 = 2.36)’, ‘과거의 좋은 추억을 회상한다 (Z값 차이 = 2.27)’, ‘그럭저럭 목숨이 있는 한 살아간다 (Z값 차이 = 2.18)’, ‘살기위해 자존감을 포기한다 (Z값 차이 = 1.75)’,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Z값 차이 = 1.54)’ 등이었고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비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이민국의 장점을 찾는다 (Z값 차이 = -2.18)’,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증진시킨다 (Z값 차이 = -1.90)’, ‘변화에 쉽게 적응한다 (Z값 차이 = -1.85)’, ‘자신의 생활태도와 가치관을 미국식으로 바꾼다 (Z값 차이 = -1.42)’ 순이었다.

유형 3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연구대상자 18번이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을 보면 ‘과거의 좋은 추억을 회상한다’, ‘어떤 상황에서서라도 자존감과 정체성을 유지한다’의 항목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비 동의한 항목은 ‘한국에서의 생활은 가능한 잊으려고 노력한다’,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증진시킨다’였다. 18번 대상자는 이민 온지 7년 된 49세 남성으로 목수 일로 생계를 유지하며 주관적 경제상태는 낮다고 보았다. 타인과 비교당하지 않는 삶을 찾아 자유의 나라 미국에 왔지만 언



어와 문화적 장벽을 넘지 못하고 이민생활이 오래 갈수록 한국이 더 그립다고 진술했다. 이민자가 주류사회에 진입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앞으로도 그럴 기회는 없을 것이므로 생존을 위해서는 한민족 공동체 안에서 자아 정체성을 인식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3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의 생존태도는 주류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유한 민족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며 모국과의 유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 ‘민족기반-고립형’으로 명명하였다.

#### 4) 제4유형: 적응기반-절충형

유형 4에 속한 대상자는 총 38명 중 6명이며 여성보다 남성이 두 배로 많고, 평균 나이는 57.7세이다. 대상자 전원이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평균 이민했수는 18.2년으로 나타났다.

유형 4가 생존태도에 관해 강하게 동의를 보인 진술 항목은 ‘변화에 쉽게 적응한다’, ‘어려움은 인내하고 참는다’, ‘스스로 만족하며 산다’, ‘이민국의 장점을 찾는다’ 등이었다. 반면 제4유형이 가장 비 동의를 보인 항목은 ‘자신의 외모를 소중히 한다’, ‘살기위해 자존감을 포기한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잊으려고 한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존감과 정체성을 유지한다’ 등으로 나타났다 (Table 5).

제4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변화에 쉽게 적응한다 (Z값 = 2.36)’, ‘한국생활과 비교하며 안도감을 갖는다 (Z값 = 1.72)’,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효자로 생각한다 (Z값 = 1.44)’, ‘스스로 만족하며 산다 (Z값 = 1.32)’, ‘이민국의 장점을 찾는다 (Z값 = 1.23)’ 등이었고 타 유형과 비교하여 Z값 -1.00 이상의 강한 비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자신의 외모를 소중히 한다 (Z값 차이 = -2.38)’,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Z값 차이 = -1.63)’,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존감과 정체성을 유지한다 (Z값 차이 = -1.59)’, ‘종교생활에 심취한다 (Z값 = -1.53)’, ‘과거의 좋은 추억을 회상한다 (Z값 = -1.48)’, ‘폭넓은 예측과 포괄적인 지식을 갖는다 (Z값 = -1.15)’ 순이었다.

유형 4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연구대상자 4번이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을 보면 ‘스스로 만족하며 산다’, ‘이민생활의 장점을 찾는다’의 항목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비 동의를 보인 항목은 ‘자신의 외모를 소중히 한다’,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쓴다’였다. 4번 대상자는 이민 온지 35년 되는 60세 남성이며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잘 살기 위해 이민을 왔으므로 긍정적 사고와 생활태도는 이민사회 적응에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외모와 건강은 삶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30년 이상의 이민생활에서 강산이 3번이나 바뀌어도 자신의 삶이 너무 허무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고백하여 이민생활에서 적응과 갈등 사이를 조율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4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생존의 필요상 일정 부분의 미국문화와 가치를 수용하고자 노력하면서도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보유하려는 점에서 갈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응기반-절충형’으로 명명하였다.

## IV. 논 의

모국을 떠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로 이주 하는 것은 수많은 변화와 새로운 과제가 동반되는 역동적 사건이다. 본 연구결과, 미국 이민 1세대의 생활경험과 생존 태도에는 개별적이고 고유한 측면들도 있지만 일반화 할 수 있는 공통적인 측면들도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1유형 (신념기반-만족형)은 타 그룹에 비해 두드러지게 종교생활에 심취하는 것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었다. 이들은 절대자를 의지하여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고 수용함으로써 이민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제1유형의 대상자들이 타 유형에 비해 연령이 높고 이민 온 햇수가 오래된 것으로 보아 노년기에 종교의식이나 신앙심이 최고조에 이른다 (Oman & Reed, 1998)는 견해와 같은 맥락을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민생활에서 종교는 중요한 대처 수단으로 밝혀져 (Cadge & Ecklund, 2007) 종교활동이 이민생활의 정신적, 영적 안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Table 5.** Descending array of Z-scores (greater than  $\pm 1$ ) and item descriptions for each type (N = 38)

Type		Q-statement	Z-Score	
I (n = 17)	6	I am devoted religious life.	1.59	
	8	I try to maintain health.	1.45	
	28	I live with a sense of wellbeing.	1.36	
	19	I try to have harmonious family relation.	1.36	
	29	I live freely and conscientiously.	1.26	
	22	I live stately with courage.	1.08	
	2	I try to forget my life in Korea.	-1.15	
	27	I feel relief compared to the life before in Korea.	-1.27	
	26	I live my own way.	-1.36	
	12	I give up self respect for survival.	-2.10	
	20	I live as long as my life lasts.	-2.24	
	II (n = 9)	4	I try to understand the purpose of immigration.	2.24
		16	I put a fitting values on materials or money.	1.60
5		I try to be ready and knowledgeable for the future.	1.34	
13		I try to find a good quality of America.	1.24	
3		I develop my personality and character.	1.21	
30		I live eagerly so that I am not left behind.	1.01	
18		I hang my hopes and reliance on my children.	-1.42	
27		I feel relief compared to the life before in Korea.	-1.70	
20		I live as long as my life lasts.	-1.86	
III (n = 6)	1	I have good memories of my past.	1.92	
	10	I maintain a connection with the Korean community.	1.79	
	26	I live my own way.	1.33	
	25	I do not reveal too much about myself.	1.13	
	14	I try to bear difficulties.	1.07	
	16	I put a fitting values on materials or money.	1.04	
	5	I try to be ready and knowledgeable for the future.	1.06	
	13	I try to find a good quality of America.	-1.19	
	17	I use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America like a dutiful child.	-1.19	
	24	I change my lifestyle and values into those of Americans.	-1.44	
	27	I feel relief compared to the life before in Korea.	-1.60	
	2	I try to forget my life in Korea.	-1.98	
	23	I improve my relationship with the main society.	-2.06	
IV(n = 6)	15	I easily adjust to changes in situation.	2.21	
	14	I try to bear difficulties.	1.77	
	21	I live in a satisfactory way.	1.37	
	13	I try to find a good quality of America.	1.30	
	28	I live with a sense of wellbeing.	1.22	
	19	I try to have harmonious family relation.	1.12	
	16	I put a fitting values on materials or money.	1.04	
	6	I am devoted religious life.	-1.13	
	5	I try to be ready and knowledgeable for the future.	-1.20	
	11	I try to maintain my self-esteem and identity in all circumstances.	-1.44	
	2	I try to forget my life in Korea.	-1.49	
	12	I give up self respect for survival.	-1.61	
	34	I value my appearance.	-2.09	

유형 1은 대상자의 생존에 관한 태도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그룹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건강유지와 가족유대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며 자아를 통합하는 수용적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는 대상자들이 이중문화권의 이민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생활태도는 자신의 몸을 잘 다스려야 가족을 평안하게 한다(修身齊家수신제가)는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 1은 한국인의 행복정서를 관계적 정서로 고려한 Koo와 Kim(2006)의 연구와, 행복 결정의 영향력이 외부적이기 보다 자기 자신에 있음을 밝힌 Lee, Choi와 Chi(2004)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제1유형의 신념기반-만족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가정적 관계에 대한 고려와 개인 내적 성향이 이민생활에서 그들이 소지한 생존의 태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제2유형(목표기반-노력형)은 그룹 중 가장 나이가 젊고, 전원이 이민결정에 동의한 그룹으로 이민의 배경은 경제적인 기회를 찾아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함이었다. 2유형이 타 그룹에 비해 두드러진 항목은 포괄적인 지식습득, 생활태도와 가치관의 전이, 주류사회와의 관계증진으로 모두가 이민 온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에 생존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Rajiman과 Tienda(2003)의 연구에서도 이민자들의 경제적 성공에 미치는 요인들로서 문화적 연결망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져 제2유형의 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거주국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문화적 측면뿐 아니라 정착시회의 제도와 조직에 참여하고 친분관계를 맺는 구조적 동화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면서도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는 그룹으로 볼 수 있다. 이는 Yoon(2003)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주자 신분으로 거주국 사회에 편입되고 거주국에서 소수집단인 한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동화는 필연적이지만 이민 1세대의 정체성은 미국에 사는 한인(Koreans in America)에 더 가깝다는 지적과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소수집단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은 그 집단 성원들이 사회의 기회구조를 어떻게 감지하고 해석하며 주어진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Rajiman과 Tienda(2003)의 제언은 2유형의 개방적 생존태도를 지지하고 있다. 미국에 건너온 아시아계 1, 2세대가 3세대보다 더 나은 성취감을 보인 이유를 Kao와 Tienda(1998)는 이민자들이 사회적 이동의 사다리 중 맨 아래에 있을 때는 상향 추구의 동기가 작용하여 경이적인 성취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유형 2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연구대상자는 “이민 1세대는 2, 3세대를 위한 디딤돌이 되는 거지요”라고 진술함으로써 이민 1세대의 정착의지와 목표지향적 책임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태도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2유형을 위해서는 거주국의 사회문화 적응의 상호과정에서 경험한 성공적 생존 전략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족공동체와의 정보교류를 통한 지지적 분위기 조성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

제3유형은 민족기반-고립형으로 이 그룹에 속한 대상자들은 이민 온 기간이 그룹 중 가장 짧으며 거주국의 사회 문화 적응에 어려움과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주류사회와의 관계형성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민족공동체와의 결속을 다지는 것을 생존 전략으로 삼는 유형이다. Yoon(2003)에 의하면 이민생활 중 중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시기는 정착 이후 5년으로 보았는데, 정착하기까지의 기간을 10년으로 본다면 3유형의 경우와 일치성을 보인다. 문헌에 의하면(Hovey, 2000; Jang, Chiriboga, & Kim, 2006), 이민자들의 정착기간이나 이들이 놓인 처지가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어 정착한지 오래된 경우보다 최근에 정착한 이민자들이 더 우울증과 불안을 보고하였으며, 언어문제, 자신감, 의지력 등이 영향요인으로 지적되었다(Oh, Koeske, & Sales, 2002).

3유형의 대상자들은 거주국의 사회참여는 활발히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문화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려는 경우로서 주류사회에서 고립되는 느낌을 준다. 유형 3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연구대상자는 한국에서 대학교육을 받고 화이트칼라 직업에 종사하다 더 좋은 생활기회를 찾아 이민을 왔지만 거주국의 노동시장에서 전문직의 대우를 받지 못하자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순노동으로 전락한 경우이다. 이는 3유형의 대부분이 한인을 상대로 한 자영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

아 높은 학력과 중산층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민 1세대의 약점인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하여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영업에 참여하게 된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 이민온 아랍인 (Barry, 2005)과 인디안 (Bhattacharya, 2008) 역시 저소득으로 인한 주변화,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강하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참여자의 경우와 유사하다. 3유형의 경우, 민족성에 대한 애착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과 같은 객관적 여건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민사회에서 민족애착은 직업, 인간관계 등 자신의 생활기회에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사회관계의 중요한 기초가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민 2, 3세대들의 경우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적 동화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한다 (Porter & Washington, 1993; Sanders, 2002). 따라서 제3유형의 대상자를 위해서는 민족정체성과 애착성을 개인적,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미국이민의 경우, 다양한 관련 변인들을 포함하는 소수집단의 대안적인 적응방식과 생존 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4유형은 적응기반-절충형으로 이 그룹에 속한 대상자들은 거주국의 사회 문화에 쉽게 적응하는 편으로 보이나 주류사회에 완전히 흡수되는 동화는 보이지 않는다. 4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두드러진 항목은 ‘건강과 외모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인데 이는 한국인의 타인중심형의 비교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행복, 건강, 성취이며 (Hahn, 2006), 한국인의 정서는 사회적 평가에 의해 자주 유발되며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도 타인의 인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Lee et al., 2004). 그러므로 건강이나 외모는 한국인의 가치관과 정서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4유형의 대상자는 미국이민사회의 가치관을 어느 정도 흡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생활을 잊으려고 하지 않는 점을 볼 때에 4유형에서 보이는 문화적 동화는 Berry (200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언제나 직선적이고 전진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유형 4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연구대상자는 “외모는 자신의 참 모습이 아니고 또한 살기 위해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고 진술함으로써 이는 이민 1세대로서 거주국의 실용적 문화와 내면적 가치를 수용하면서도 고유한 민족정서인 “우리” 문화는 잃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유학사상은 집단주의 문화의 사상적 모태로서 (Cho, 2007) 4유형이 보이는 생존태도는 유교적 가치관이 영향을 받은 한국사회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4유형을 위해서는 이민사회에서 습득된 문화와 모국의 민족정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개인적, 도덕적 마찰을 극복할 수 있는 조화로운 인과적 시각이 필요하다.

상기 제시한 네 가지 유형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제1유형과 4유형이 .338로 나타나 신념기반-만족형은 적응기반-절충형과 상관이 높은 반면, 제3유형과 4유형은 -.095로 민족기반-고립형과 적응기반-절충형과는 상관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의 미국 이민 1세대의 생존 태도를 뚜렷이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거주국의 사회문화에 적응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기반으로 수용과 만족의 태도를 소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4개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의 평균연령, 이민 온 햇수, 직업, 주관적 경제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제1유형 (평균연령 58.6세)에 속한 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았으며 제4유형 (평균 57.7세), 3유형 (평균 53.7세), 2유형 (평균 53세)의 순으로 평균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념기반-만족형인 1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이 가장 많으며, 목표기반-노력형인 2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이 가장 적었다. 이민 온 햇수는 1유형 (신념기반-만족형)이 평균 21.5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3유형 (민족기반-고립형)이 평균 15.3년으로 가장 짧았다. 한편 직업은 2유형과 4유형이 대부분 자영업에 종사하였고 3유형은 단순노동이 많았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2유형이 높게 인식한 반면 3유형은 낮게 인식하였다. 교육수준은 모든 유형에서 대부분이 대졸 이상의 수준이었고 각 유형의 대상자가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이상에서 연령이 높고, 이민

은 햇수가 오래된 그룹이 이민생활의 적응도와 사회문화적 수용도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생존 태도에 관련성이 있음(Jang et al., 2006)을 입증하였다.

이상에서 이민 1세대의 생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개인과정 요인들, 대인과정요인들, 그리고 한국의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민 1세대의 생존 태도에 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가치관과 성취의식, 그리고 한국인의 정서를 문화적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 이민 1세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인식하며, 자기가 성취하기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한다. 이와 같이 자기조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은 성취상황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민 1세대의 신체, 사회, 심리적 돌봄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을 위한 돌봄 실천으로는 한국인의 관계중심적 정서와 가족중심 문화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간호실무의 관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Leininger (1988)가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전문인으로서 돌봄에서 대상자의 문화적 가치, 우선순위 및 특성 파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강조했다는 점에 있다. 즉 돌봄 유형은 문화권에 따라 상이하며 돌봄의 행위는 인간의 성장과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미국 이민 1세대의 생존태도를 파악한 본 연구는 미국 내 소수민족의 건강신념과 돌봄행위를 예측하여 간호 지식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본다.

상기 본 연구에서 드러난 이민 1세대의 생존태도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사회적 현실과 유사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개인적 수준에서의 정체성 혼란과 언어장벽, 차별적 태도로 인한 소외감, 소수민족의 사회적 빈곤 등은 개인적 갈등의 심화와 사회적 응집성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Cho (2008)는 동족사회 노인의 시간경험은 건강과 생존의 주요 소인 문화현상임을 밝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예측되는 건강문제에 대한 간호학적 대응을 모색한 바

있다. 한편 Kim 등 (2008)은 이주노동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서 보건 의료에 대한 심각한 소외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신규이민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다문화 가족의 건강관리와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문화적 맥락에서 소수민족을 위한 다차원적 돌봄 중재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한국인의 미국 이민 1세대를 위한 생존 전략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에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각 유형별 접근이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신념기반-만족형’의 특성을 지닌 대상자들에게는 종교적, 가정적 관계와 개인 내적 성향을 고려하여 생존 태도를 배양할 수 있는 행복추구 모형 제시가 요구되며, ‘목표기반-노력형’에 속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성공적 생존 전략 사례의 공유와 민족공동체와의 정보교류를 통한 지지적 분위기 확산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족기반-고립형’을 위해서는 다문화사회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관련 변인들을 포함하는 소수집단의 대안적인 적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적응기반-절충형’에 속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이민사회에서 습득된 문화와 모국의 민족정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개인적,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재고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는 미국 이민 1세대의 생존 태도를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소수민족을 위한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통합적인 생존전략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분류된 미국 이민 1세대의 생존태도 유형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자의 특성과 각 유형별 태도에 따른 차별화된 생존전략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내 소수민족의 생존태도를 규명하여 비교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간호교육과정 개발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Barry, D. T. (2005). Measuring acculturation among male Arab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Immigrant Health, 7*(3), 179-184.
- Berry, J. W.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Chun K, Balls-Organista P, Narin G, ed.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Washington, DC: APA Press.
- Bhattacharya, G. (2008). Acculturating Indian immigrant men in New York city: Applying the social capital construct to understand their experiences and health. *Journal of Immigrant Minority Health, 10*, 91-101.
- Cadge, W., & Ecklund, E. H. (2007). Immigration and relig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33*, 359-379.
- Cho, G. H. (2007). The confucian origin of the East Asian collectivism. *Journal of Korean Psychology, 21*, 21-54.
- Cho, M. O. (2008). Aging and temporality of aged in a cla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0*(2), 280-295.
- Folkman, S., Lazarus, R. S., Gruen, R. J., & DeLongis, A. (1986). Appraisal, coping, health status, and psychological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71-579.
- Hahn, D. W. (2006). Correlates of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n culture.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2*, 45-79.
- Hovey, J. D. (2000).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entral American immigra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0*(2), 125-139.
- Jang, Y. R., Chiriboga, D. A., & Kim, G. Y. (2006). Acculturation and manifestation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American older adult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15*, 51-73.
- Kao, G., & Tienda, M. (1998). Educational aspirations of minority youth.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3*, 349-384.
- Kim, E. J., & Wolpin, S. (2008). The Korean American family: Adolescents versus parents acculturation to American culture. *Journal of Cultural Diversity, 15*(3), 108-116.
- Kim, H. G. (1992). Understanding of Q-methodology for the study of subjectivity. *The Seoul Journal of Nursing, 6*, 1-10.
- Kim, S. J., Lee, S. H., Kim, S. Y., Kim, A. L., Park, H. T., & Lee, Y. J. (2008). Migrant workers' quality of life related to healt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0*(5), 791-803.
- Koo, J. S., & Kim, U. C. (2006). Happi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Korean students and adult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2*, 77-100.
- Lee, S. R. (2008). *The nature of social personality*. Seoul: Davinchi-house.
- Lee, Y. H., Choi, B. A., & Chi, Y. S. (2004). Guidelines for happiness: Lessons from the cases the "happy family story contes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 41-51.
- Leininger, M. M. (1988). Leininger's theory of nursing: Cultural care diversity and universality. *Nursing Science Quarterly, 1*(4), 152-160.
- Nate (2009-a, October). *Nate Korean dictionary*. Retrieved October 21, 2009, from the Nate Web site: <http://alldic.nate.com/search/krdic.html>
- Nate (2009-b, October). *Nate English dictionary*. Retrieved October 22, 2009, from the Nate Web site: <http://search.nate.com/search/eedic.html>
- Oh, Y. J., Koeske, G. F., & Sales, E. (2002). Acculturation,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 511-526.
- Oman, D., & Reed, D. (1998). Religion and mortality among the community-dwelling elderl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8*(10), 1469-1475.
- Park, S. Y., & Bernstein, K. S. (2008). Depression and Korean American immigrant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2*, 12-19.
- Porter, J. R., & Washington, R. E. (1993). Minority identity and self-este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 139-161.
- Raijman, R., & Tienda, M. (2003). Ethnic foundations of economic transactions: Mexican and Korean immigrant entrepreneurs in Chicago. *Ethnic and Racial Studies, 26*, 783-801.
- Sanders, J. M. (2002). Ethnic boundaries and identity in plural societi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8*, 327-357.
- Shin, H. S., Han, H. R., & Kim, M. T. (2007). Predi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st Korean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A structured interview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4*, 415-426.
- Smedley, B. D., Stith, A. Y., & Nelson, A. R. (2003). *Unequal treatment: Confronting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in health-care*.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 Stephenson, W. (1982). Q-Methodology, interbehavioral psychology and quantum theory. *The Psychological Record, 3*, 238-248.
- Yoon, I. J. (2003). The Korean diaspora: Migration, adaptation, and identity of overseas Koreans. *Korean Sociology, 37*, 101-142.